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b>인천</b>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4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안전과	담당자	• 환경보건팀장 이국화 ☎440-3711 • 담당자 서미정 ☎440-37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 환경성질환 예방위해 환경보건계획 수립**  
**- 지역특성 반영한 4대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 46개 세부 실천과제 제시 -**

인천시가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 중기계획이다.

앞으로 8년간 인천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인데,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한 환경보건 역량을 강

화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조사·규명 뿐만 아니라 환경 유해인자 능동 관리·예방대책을 마련해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환경유해인자에 안전한 환경, 건강한 인천 구현’의 비전과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 46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4대 추진전략은 ▲환경 유해인자 능동 감시 및 대응, ▲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환경보건 기반 구축이다.

추진전략 별로는 인천시 현황, 환경유해인자 등 지역특성 분석을 통해 환경보건취약지역 건강영양조사,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환경보건 취약지역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등을 포함해 12개 중점사업을 선정했고, 이를 위한 46개 사업을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계획에서는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들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계획을 수립코자 했다”며, “앞으로 세부사업들이 잘 추진돼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

다. 또, 용역 결과를 활용한 환경보건실천계획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